

조지호·김봉식 영장신청...대통령실 2차 압수수색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속도 내는 김·경 수사

조·김 청장 안가회동 내용 추궁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장관 소환
여인형 방첩사령관 재소환 조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비화폰 확보

12·3 내란범죄를 수사 중인 김·경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 선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첫 소환된 국무회의 참석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입문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간 것이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경찰에서 "문서에 장 대상으로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브 김여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 이 적혀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은 기존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조정장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2분부터 6시 28분까지 집무실에, 밤 10시 2분까지 공관에, 이후 자정까지 집무실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수본은 안가 회동과 관련한 조 장관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여

인형 방첩사령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전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참고자료' 등 계엄 대비 문건을 작성시켜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 날 정성우 방첩사 1차장,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방첩사 간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초여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고 계엄 당시에는 전화로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조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인지 시기와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연일 진행되고 있다. 국수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력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서 임의로 제출한 자료만 받아왔지만, 이날 다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도 이날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병력 중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하고 수방사에서 비화폰 서버자료도 챙겼다./정병호 기자 jusbh@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합참 임의제출 자료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성·삿대질...한-친윤 충돌에 아수라장 된 국힘 의총

한대표 발언에 "사퇴하라" 반발
"내란 자백" "배신의 정치" 설전
조경태 "이제는 윤석열 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직전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도화선이 됐다.

한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예기한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담화를 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듣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화의)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한 대목에서 좌중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만하고

내려오라" "사퇴하라" 등 고성인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경우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씀인가"라고 따졌고, 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 등은 한 대표에게 연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며 삿대질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제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정해야 할 때다. 담화를 못 보고 온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오라"며 말을 이어갔다.

마이크를 잡은 이철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이런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 데에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 의원 다수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께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또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이 또한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서두른 감이 있다"며 "대표의 말씀은 당의 이야기기 된다. 적어도 의총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런 결정이나 발표를 하

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한 대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다"고 재차 강조한 뒤 연단을 내려갔다.

한 대표가 의총장을 떠난 후에도 의원들은 한때 의총 진행 방식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토론 필요성을 지적하며 비공개 전환을 요구했고, 김상욱 의원은 "국민도 보셔야 한다"며 공개 진행을 주장했다.

양측의 설전은 의총 이후에도 한중 수위를 높여 이어졌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대통령 담화를 두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비한(비한동훈)계인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합부로 내란죄 자백을 운운하는 한동훈 대표의 언행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권한 행사...국무회의 안전 42건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이후에도 법령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했다.

법제처는 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검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안전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한 것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131로 36

www.kwangshin.ac.kr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